

## 연일 발생하는 사상자, 오래 남는 상처

시리아 북동부 데이르에조르 주에 남아 있는  
지뢰, 위장 폭탄, 그 외 폭발 장치들



## 목차

날마다 생기는 사상자, 오래 남는 상처 .....	3
1. 머리말.....	3
2. 의료적 · 인도적 영향 .....	4
2.1. 민간인을 위협하는 폭발 장치 .....	4
2.2. 선뜻 권하기 어려운 귀환.....	4
2.3. 더딘 지뢰 제거 활동 .....	6
2.4. 법적 고려사항.....	6
2.5. 인적 손실.....	7
3. 향후 전망.....	10

**국경없는의사회는 데이르에조르에서 지뢰 제거와 위기 교육 활동을 조속히 확대하고, 폭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중대 의약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시리아 안팎의 모든 관련 단체에 촉구한다.**

# 연일 발생하는 사상자, 오래 남는 상처

시리아 북동부 데이르에조르 주에 남아 있는  
지뢰, 위장 폭탄, 그 외 폭발 장치들

시리아 북동부 데이르에조르 주로부터 계속해서 부상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에 본 문서는 데이르에조르에서 지뢰 제거 활동이 시급하다는 것을 간략히 보여주고자 제작되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하사케 병원은 데이르에조르 사람들이 무상 2 차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설로, 지뢰 피해가 가장 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문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1) 병원 의료 기록, 2) 데이르에조르 전역에서 지뢰, 위장 폭탄, 기타 유사 장치로 부상을 입은 환자·보호자 증언, 3) (가칭) 인도주의 지뢰 제거 액션그룹(Humanitarian Mine Action Group, MAG), 휴먼니티&인클루전(Humanity & Inclusion) 등 구호 단체들과의 양자 회의 내용, 4) 여러 외부 보고서, 5) 국경없는의사회 내부 논의 자료.

## 1. 머리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던 세다르, 두무아, 부틀, 아리마스, 라미스는 모직물에 싸여 있던 폭발 장치가 터져 부상을 입었다. 다섯 자매는 작은 찰과상에서 양다리 절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상을 입고 국경없는의사회 하사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 지금 이 병원은 벽마다 코끼리, 꽃, 자연 풍경 등 다채로운 그림이 가득하다. 분쟁 중 사고로 병원에 온 소년소녀 환자들의 작품이다. 아직 그치지 않은 전쟁 속에 시리아 북동부 민간인들이 이렇듯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 11 월 초부터 폭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절반가량은 아동으로 총 138 명이다. 대다수(70%)가 데이르에조르 출신이고 지뢰, 위장 폭탄, 그 외 유사 장치가 폭발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제이납은 물을 긴기 위해 강가로 가던 중이었고, 살레와 이브라힘은 휴대폰 덮개를 찾으러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둘러보던 중이었다. 자예드는 농지에서 양치기와 함께 있었고, 모함마드는 들판에서 새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들 중 몇몇은 사고 후 팔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병원 복도에서 열리는 ‘휠체어 경주’는 아이들의 인기 놀이가 되었다.

사망, 부상, 외상 – 모두 피할 수 있었던 일들

폭발물로 인한 사망, 부상, 정신적 외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데이르에조르 주에서 시급히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유프라테스 강둑 곳곳에 폭발물 상당량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해 왔다. 이런 문제들이 지역민 혹은 귀환민의 안전과 치안에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주민 수백 명이 심지어 집 안에서 부상을 당했다. 아미나는 몇 달간 피난을 떠나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 거실

바닥에 반쯤 덮여 있던 폭발물을 밟고 말았다. 결국 병원에 입원해 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아미나는 이따금씩 두 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아미나가 살던 아부 하맘 동네에서는 수십 명이 이 같은 일을 당했고, 지난 몇 달간 곳곳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교전선이 남동쪽으로 더 이동하기 전, 퇴각하는 무장 단체들이 무수히 많은 폭발물을 버려둔 탓이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의료 체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환자의 부상 강도와 회복 여부를 결정 짓는 것이 바로 시간인데, 무상 수술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때로 몇 시간씩 이동해야 한다.

## 2. 의료적 · 인도적 영향

지뢰와 위장 폭탄은 데이르에조르 주에 사는 수천 명의 아동과 여성들이 날마다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하사케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은 찬장, 냉방 기기, 계단 밑, 길가에 숨겨진 폭발물 때문에 화를 당했다고 했다. 어떤 환자들은 베개, 냄비, 꾸란 가방 등 일상 용품 속에 들어 있던 폭발물 때문에 수차례 부상을 입은 이웃들 이야기도 전했다. 지뢰 제거 담당자들은 심지어 장난감 속에서도 폭발물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지뢰 분포의 정확한 규모를 보여주는 전문적인 조사는 없었다. 지뢰 제거 활동 또한 유프라테스 강 서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다. 그 와중에도 폭발 장치들은 계속해서 아동, 성인의 목숨을 앗아가고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고 있다. MAG 이 지적했듯이 “지뢰와 미폭발 장치들은 무차별 살인자이다. 평화 조약이나 정전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분쟁이 끝나고 수십 년간 땅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 막 삶을 다시 일으키려는 사람들 앞에 불쑥 나타나 사람들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고 그들의 생계를 무너뜨린다. 또한 땅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위험과 가난 속에 갇히게 한다.”

### 2.1. 민간인을 위협하는 폭발 장치

- **4.5 개월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뢰, 위장 폭탄으로 인한 부상 환자 133 명을 받았다. 하루 평균 1 명꼴이다.** 2017년 11월 후반부터 이런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2017년 11월에 17 명, 12월에 39 명, 2018년 1월에는 41 명이 병원을 찾았다. 2월 초부터 3월 14일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총 36 명이었다. 환자의 75% 이상은 데이르에조르 출신이다. 대부분 아부 하맘 주민들이나 하진, 디반, 가라니쉬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라카, 하사케 주민들도 있지만 그곳에 다른 의료 시설들이 가까이 있어 비교적 수는 적은 편이다.
- **지뢰, 위장 폭탄, 기타 유사 장치 폭발로 치료받은 환자 절반 이상은 아동이었고, 몇몇 아동은 1 세밖에 안 될 정도로 매우 어렸다.** 미성년자 · 성인 환자들은 다양한 부상을 입었다. 유산탄 파편으로 인한 열상에서부터 눈 부종, 뇌 · 흉부 손상, 팔 골절, 내장 돌출, 복부 기관 파열, 혈관 약화에 따른 외상성 절단까지 다양했다. 다리나 발을 절단한 환자들은 사라진 다리에서 통증을 느끼는 ‘환상통’을 겪기도 한다. 구호 단체

Humanity & Inclusion (구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팔다리를 절단하게 된 모든 사람에게 목발, 휠체어 등 보조 기구를 제공하고,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하사케 병원을 비롯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여러 시설에서 물리치료 등 재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Humanity & Inclusion은 최근 카미술리 지역에 보철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선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데다 자원이 부족해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보철 기구를 얻으려면 몇 주 혹은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

- **심각하게 훼손된 데이르에조르 의료 체계는 환자들의 생존 확률을 떨어뜨린다.** 폭발 장치가 터졌을 때는 1분 1초가 중요하다. 목숨을 보존한 환자에게 즉시 치료는 부상 강도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고 당시 주변에 적합한 공립 병원이 없을 경우, 금전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립 의료 시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교통비가 있다면 하사케로 간다. (많은 경우 밀수업자들에게 피해를 본다.)

## 2.2. 선뜻 권하기 어려운 귀환

- **갖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천 명이 데이르에조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데이르에조르는 2017년 한 해 동안 가장 인구 이동이 많았던 주이다. 시리아 국내 실향민에 관한 유엔 추적 자료에 따르면, 총 80만 명이 이동했는데 이는 시리아 내 전체 인구 이동의 30%를 차지한다. 달리 말해 수십만 명이 피난을 떠났고, 두세 번씩 피난을 떠난 사람들도 많았다는 말이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난민캠프, 외딴 곳의 비공식 정착지, 타 지역에 머물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많은 이들이 귀향 길에 올랐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 **최근 몇 달간 위기 교육 활동이 확대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에 비해 수요가 훨씬 큰 상황이다.** 피난민 중에는 고향 마을에 폭발 장치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그 위험 정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MAG과 Humanity & Inclusion을 포함해 시리아 북동부에서 인식제고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가 약 10개로 추산된다. 이 단체들은 피난민 캠프 및 피난민들이 머무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폭발물들이 꽤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도 알리고 집에 돌아가면 할 일, 폭발물을 알아차리는 방법,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했을 때의 구체적 행동 지침, 사고 발생 시 대처법 등을 전해준다. 피난민들 사이에는 갖가지 오해들이 퍼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지뢰나 위장 폭탄에 물을 대량으로 부으면 폭발 위험이 사라진다고 믿으며, 폭발물 위로 재빨리 지나가면 폭발 장치가 터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MAG, Humanity & Inclusion 등 여러 단체들은 지역사회 조사에 나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위험 행동들이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있다. 폭발물을 스스로 해체하려고 한다거나, 폭발물을 조작하면 터질 수도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폭발물을 잠그려고 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다. 인도주의 단체들과 지뢰 제거 단체들이 위기 교육 자료를 나눠주고 있지만, 피난민도

수천 명에 달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 현장 역량을 더 보강해야 한다. 게다가 애초에 데이르에조르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치안 문제로 이런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들로 피난민을 돌려 보내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아리샤 캠프에 3 월 중순까지 1 만 6800 명이 머물고 있었는데, 2017 년 말부터 캠프 행정 담당자들이 현지 공무원들과 협력해 사람들을 아부 카샤브, 알-사크라, 쿠바르, 알-소와르, 부세이라, 자즈완, 자즈라트, 알-슈헤일, 디반 등 데이르에조르 곳곳으로 돌아가도록 권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버스를 대절해 주고, 치안군의 호위 속에 민간 호송대로 사람들을 중간 지점까지 안내한 뒤 피난민들의 의사에 따라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그 지역들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인도주의 및 지뢰 제거 단체들의 요구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사실, 2 월 초반에 집에서 부상을 당한 다섯 자매는 폭력을 피해 다른 곳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디반으로 돌아간 귀환민들이었다. 1 월에 집에서 부상을 입고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하사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른 4 명의 어린 아동들도 마찬가지 경우였다. 쿠바르에서는 위장 폭탄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때문에 3 월에 한 소년은 목숨을 잃었고 그의 형제 · 사촌 등 4 명은 부상을 입었다.
- **인도적 지원 활동도 귀환을 부추기는 일종의 ‘밀고 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물자가 부족한 지금, 캠프의 피난민들은 무료 구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맞춰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렇게 지내다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귀환을 고려하는 것이다. 고향에 대한 애착, 폭발물에 관한 인식 부족, 적절한 구호 지원 부족 등 갖가지 이유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 하사케와 데이르에조르에 있는 피난민들은 궁지에 몰려 있다. 우선, 피난민 캠프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전과 생필품이 제공된다. 물론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소득 창출 활동도 여전히 부족하며 이동의 자유도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실향민들이 떠나온 고향 마을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고 잠재적 위험이 있는 데다 아무런 서비스도 없지만, 피난민들이 두고 온 모든 것과 안전망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3. 더딘 지뢰 제거 활동

- **학교를 포함해 곳곳에 깔린 폭발 장치가 수십만 개로 예상된다.** 지뢰 제거 전문가들은 다른 주들에서 관찰한 패턴 및 최근 사건들을 고려할 때 민가, 교육 · 의료 시설, 배수펌프장, 전봇대, 경작지 등에 지뢰와 위장 폭탄이 널리 퍼져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이 시리아 내 다른 지역에서 해체 작업을 했던 폭발물을 보면 분쟁 당사자들이 남긴 장비들은 강철, 소화기, 미폭발 폭탄, 전쟁 잔여물 등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이용한 것으로 단순하나 효과적인 혹은 매우 정교한 장치이다. 때로는 3D 프린팅, 원격 조정, 운동 감지기, 적외선, 소형 스위치 등 첨단 기술이 널리 쓰이기도 한다. 빗물에 내부 장치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수 기능까지 탑재한 장치들까지 있을 정도이다.

- **데이르에조르는 라카 상황에 가려져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0월 이슬람국가(IS) 관련 단체를 축출한 이후로 인도주의 단체들과 지뢰 제거 단체들이 서서히 라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현재 폭발물 제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MAG, RISF, Tetra Tech 등 3곳이다.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지뢰를 제거하는 MAG는 활동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RISF는 시리아 민주군(SDF) 출신으로 미국의 훈련을 받은 단체다. Tetra Tech은 미 국무부의 기금 지원을 받는 영리 기업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라카 시민위원회와 함께 정한 협의사항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다. Tetra Tech의 주요 지원 분야는 필수 인프라다. 현재 폭발 장치들이 퍼져 있는 규모를 고려할 때, 지뢰 제거 작업을 완료하는 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데이르에조르에는 위험성 폭발물도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국제사회의 관심 영역에서 대체로 벗어나 있다.
- **폭발물 분포 추정치를 고려했을 때, 보다 전문적인 주체가 필요할 것이다.** 3월경에 데이르에조르 활동 개시를 목표로 지뢰 제거 전문 기술, 인력, 필요 물자 등을 갖춘 단체는 현재까지 MAG뿐이다. 그 외 단체들은 치안 문제, 정치적 상황, 물류적 장애 등으로 인해 활동 의지와 역량이 제한적이다. 사실 시리아 북동부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 수 있다. 필요한 장비를 국경 너머에서 들여오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시리아는 일반적으로 치안이 높지 않은 곳이라고 여겨진다. 교전이 벌어지는 전선이 가깝다는 것도 숙련된 직원들을 떠나게 만든다. 데이르에조르 상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매우 낮다. 이 지역에 제 기능을 하는 의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이 부상을 입을 경우 대피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 지뢰 제거를 중시하여 기금과 접근성을 확보한다면 이러한 장애는 뛰어넘을 수 있다.
- **임시 방편으로 진행하는 제거 작업이 민간인들의 사망과 영구 장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데이르에조르 대부분 지역에서 체계적인 지뢰 제거 활동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많은 이들은 직접 그 일에 나서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단순히 폭발 장치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 상황을 조사하는 일까지 감당하고 있다.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피난 가족들은 스스로 집을 살펴봐야 한다. 이때 주로 가장이 이 일을 맡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집을 살펴보려고 긴 막대로 멀리서 문을 열기도 하고, 가정용품 중 냉장고가 위험하다고 들은 사람들은 그 속에 위험물이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려고 팽팽한 줄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폭발 장치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터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충분치 않을 때도 많다. 최근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하사케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는 위장 폭탄에 연결된 가는 실을 무심코 건드렸다가 화를 당했다. 환자의 친구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 2.4. 법적 고려사항

- 1997년에 채택된 대인지뢰금지협약(Mine Ban Treaty)에서는 사람의 존재, 근접, 접촉에 의해 폭발하여 1명 이상에게 장애, 부상, 사망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위험물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로써 대인지뢰가

유발하는 고통과 사상자 발생을 종식시키려는 것이다. “지뢰는 경제 발전과 재건을 가로막고, 난민과 국내 실향민의 송환을 저해하며, 지뢰 매설 후 수년 동안 중대한 여파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협약 이전에도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sup>1</sup>, 그리고 1996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 51/45 S가 있었다. 이 결의안은 이 주제에 관해 “효과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협약을 적극적으로 따를 것”을 촉구했다.

- 시리아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등의 비정부 무장 단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데이르에조르를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상황은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대인지뢰금지협약 문서에는 “협약 가입국은 해당 관할 혹은 통제 아래 있는 지뢰 지대의 모든 대인지뢰를 폐기할 의무를 있다. 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협약 발효 후 최대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유프라테스 강둑에 자리한 영토는 그 일부가 다른 국가들과의 전쟁에 연루돼 있어 각기 다른 세력이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 2.5. 인적 손실

단 한 번의 폭발로도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사망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고통 받는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 형제, 친척, 이웃, 전체 지역사회에까지 여파를 가져온다.

10살인 함두는 한 번도 학교에 가 본 적이 없다. 병원에서 난생 처음 그림을 그렸고, 아빠와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색깔의 이름을 익혔다. 함두는 고향 아부 하맘에서 “펜처럼” 생긴 것을 가지고 놀았는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막대가 폭발했다. 그 물건은 함두 집에서 5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대추야자 나무 밑에 있던 것이다. 이 폭발로 함두는 손가락 2개를 잃었고 흉부에 유산탄 파편이 박혔는데, 함두 아버지는 그나마 아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 동네에 살던 다른 두 아동은 최근 비슷한 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 혹은 양쪽 다리를 잃어버려서 새로운 생활에 대처할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하난은 그래도 한쪽 다리가 있어서 목발을 짚고 다니지만, 압둘라는 양다리 모두 무릎까지 절단해 훌체어를 타기 시작했다.

함두, 하난, 압둘라는 동시에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병원에 입원했다. 이 지역 치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여주는 예이다. 데이르에조르에서 지뢰, 위장 폭탄 피해를 입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이 세 아동의 가족들도 얼마 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귀환민들은 계속 폭발물 피해를 입고 있으며, 부상자를 데리고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하사케 병원까지 오려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한다. 오는 동안 우선 민간 진료소나 군 시설에 들러 응급 처치를 받는다. 병원에 도착해 의료팀의 체크를 받은 환자들은 한 공간에 모여 있다가 수술실로 가거나 응급실 중 한 곳으로 들어간다. 응급실은 부상 정도에 따라 그린 존, 옐로우 존, 레드 존으로 분리되어 있다.

---

<sup>1</sup>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피부 표면에 생기는 열상에서부터 팔다리에 심각한 지장을 끼칠 수 있는 급성 혈관 손상에 이르기까지 진단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치료도 다양하다. 하사케의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병원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절단술을 실시한다. 그 밖에 드레싱, 외부 고정술, 흉곽 튜브 삽입, (진단을 위한) 탐색적 개복술, 유산탄 파편 제거(두개, 눈, 안면 등), 내장 절제 혹은 복구, 정형외과 치료, 골절·탈구 정복술, 혈관 수술 등도 실시한다. 치료를 통해 상태가 안정된 환자들은 심리학자, 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팀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도 받는다. 이 팀은 환자가 자기 나름의 대처 기술을 익히고 차츰 외상을 극복해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지뢰와 위장 폭탄은 피해자와 가족에 막대한 신체적·심리적 영향을 끼치므로 데이르에조르 관련 당국과 인도주의 단체, 지뢰 제거 단체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

#### 다섯 자매의 이야기 - “세다르를 보세요. 두 다리 다 무릎까지밖에 없어요”

후마이드(45 세)는 데이르에조르 디반 출신이다. 두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 10 명을 얻었는데 그중 세다르(4 세), 두무아(5 세), 부틀(6 세), 아리마스(9 세), 라미스(13 세)가 위장 폭탄 폭발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전투를 피해 디반에서 탈출했어요. 상황이 좀 가라앉은 뒤에 혼자 돌아가 집을 살펴봤는데  
의심스러운 장치가 없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갔죠.”

“두 달 뒤였어요. 운전 중에 어린 조카의 전화를 받았는데, 폭발이 나서 제 다섯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같이 놀면서 지붕에서 땡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모직 뭉치에 싸여 있던 물건이 터져서 전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진료소에 갔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간호사들도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들 중 한 명에게는 잘못된 혈액형의 피를 수혈하려고 하더라고요. 급기야 저는 참지 못하고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발 뭘 좀 해보세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제야 의사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딸의 다리에 묶었습니다.”

“[...] 전쟁 전에는 자격 있는 의사들이 있었는데, 전투가 나자 다들 떠났습니다.”

[참고: 많은 전공의들과 간호사들이 전쟁 때문에 탈출했다. 그 결과 의료 지원에 엄청난 격차가 나타났고, 몇몇 사람들은 몹시 난처한 상황 속에서 즉흥적으로 치료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몇 가지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두 차례 수술을 한 뒤, 의료진은 아이들을 데려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사케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덕분에 차도 두 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한 대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병원까지 4 시간도 넘게 걸렸습니다. 여기 도착했을 때 이미 밖은 어두워졌습니다. 응급 상황인 것이 명백해서인지

검문소에서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제 남동생이 하사케 입구에서 이 병원에 대한 정보를 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상 치료인 줄은 몰랐죠. 그 병원을 지원하는 국경없는의사회 같은 단체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세다르를 보세요. 두 다리 다 무릎까지밖에 없어요. 이따금씩(있지도 않은) 발에 통증이 느껴져서 혼란스러워하고 울기도 해요. 이곳 의사 선생님들은 세다르를 세심하게 쟁겨 주시고, 다른 아이들도 잘 쟁겨 주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다마스쿠스까지 가야 했을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불가능한 것도 다 뛰어넘을 각오였으니까요.”

“우리 집에는 피난민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 그들이 무사해서 정말 신께 감사드려요.”

“전에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는 알-마야딘에 있는 병원이나 사립 진료소에 가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슬람국가(IS)가 와서 도시를 폐쇄해 버리는 바람에 아무도 도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의사들은 긴장 속에 버티다 다들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누군가 아프면 친척에게 필요한 약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습 때문에 지금은 많은 시설들이 무너졌거나 폐쇄됐습니다. 다시 문을 열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도 있지만 제대로 된 장비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디반에 컴퓨터 좀 가지고 있는데요. 국경없는의사회가 진료소를 짓고 싶다면 그 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디 지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을 고용해서 지뢰를 없애 주세요. 아이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 월 5 일에 사고를 당한 다섯 자매는 3 월 13 일에 병원에서 퇴원했다. 첫째는 부상이 심해서 한쪽 다리 일부를 절단해야 했다.

#### 다섯 형제와 사촌들 - “아이들은 그저 구슬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레일라(45 세)는 데이르에조르 쿠바르 출신이다. 3 월 9 일, 레일라의 다섯 조카는 농지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 지뢰 혹은 위장 폭탄이 터졌다. 5 시간 뒤, 친척들은 이 아이들을 하사케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병원에 데리고 왔다. 그중 나빌(5 세)은 목숨을 잃었고, 칼레드(10 세)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증 두부 외상을 입었다. 칼레드의 형 알리(12 세)는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어 시급히 개복술을 해야 했다. 마르완(8 세)과 레드완(13 세)은 비교적 경미한 유산탄 부상을 입었다.

“공습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 엄청 큰 소리가 났거든요. 우리 전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났나 보려고 몰려 갔습니다. 저는 눈앞에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아이는 머리 안쪽이 밖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구슬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차가 있어요. 그래서 조카들을 뒤에 태우고 쿠바르에서 15km 떨어져 있는 하와스 진료소로 갔습니다. 알-카스라 진료소에는 의사가 한 명도 없고 간호사들도 거의 없어서 그리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말이 그랬거든요. 게다가 제대로 된 장비도 없어서 그냥 단순한 상처만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제 조카들을 감당할 역량은 없었을 겁니다. 들어 보니까 지금 공립 병원을 복구하면서 이제 겨우 페인트칠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응급 치료, 상처 처치, 정맥 수액을 맞고 나서 한 삼촌 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사케에 오셨습니다. 저녁 7 시~8 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이 병원에서는 외국 의사들이 무료로 의료 지원한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렌터카를 타고 뒤따라 왔습니다. 교통비로 27,000 시리아 파운드(SYP)가 들었습니다.”

“조카 한 명은 결국 목숨을 잃었어요. 부디 나머지 아이들은 무사히 지켜주시길 신께 기도 드립니다.”

“사실 조카 2 명은 고아입니다. 10년 전 아이들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와 외삼촌 가족들과 함께 살았죠. 가진 거라고는 염소 몇 마리와 양 한 마리가 전부였고, 시멘트와 진흙으로 지은 집에 살았습니다. 이때껏 살아온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일까지 당했습니다.”

“들어 보니 최근에 이런 사고가 10 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숨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난을 떠나 있는 동안 이슬람국가(IS) 단체는 도시에 지뢰를 깔았습니다. 대부분 집 안쪽이 아니라 대문 근처에 말이죠. 대개 물로 덮어 놨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우리는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5 개월 동안 쿠바르는 잠잠했어요. 교전이 시작되어 우리는 도시를 떠났고, 이후 1 주일 만에 교전이 멈췄는데도 우리는 20 일 정도 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차가 없는 사람은 걸어서 달아나거나 당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소를 타고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부 카샤브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 세르완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카 몇몇은 자즈라흐에 있는 친척들과 지냈고, 몇몇은 저와 함께 사바그에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은 정말 죽음 같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으니까요. 의료 문제로 다마스쿠스에 가려면 집을 담보로 잡아야 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긴 하지만 제약이

많습니다. 학교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휴연도 금지되었고, 경범죄를 저지르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참수를 당하는 겁니다.”

“전문 기관들이 와서 지뢰를 다 제거해 주었으면 합니다. 벌써 3 월, 봄입니다... 폭발 사고들이 더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이제 들판으로 양들을 데리고 나가야 할 시기거든요.”

두부 외상을 입은 1 명을 제외하고 다른 소년들은 1 주일 뒤에 모두 퇴원했다. 병원에 남은 소년은 보다 전문적인 의료 시설에서 신경외과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

### 3. 향후 전망

국경없는의사회는 즉각적인 지뢰 제거 활동을 촉구한다:

- **데이르에조르 주의 상황 조사와 지뢰 제거 절차는 시급히 속도를 높여야 한다.** 공여국들은 즉시 추가 기금을 지원해 해당 작업이 시작되게 해야 한다. 이 지역은 기존 위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우선 필요 정보를 수집하여 우선수위를 수립하고 자원을 배치한 뒤, 피해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워낙 크고 복잡한 사안이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필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추가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 폭발물들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

- **지뢰 제거 관계자들은 유연성을 발휘해 활동에 임하여 폭발 위험물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시리아 북동부의 지뢰 분포 상황을 감안할 때, 몇몇 회사들의 접근 방식은 우려를 낳는다.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있는 ‘제거 리스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지뢰 제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 예로, 몇몇 인도주의 지뢰 제거 단체들은 앞서 지뢰 제거 회사가 활동을 마친 지역에서 폭발 장치들을 발견했었다. 그 회사들은 사전 협의사항 위주로 활동하면서 필수 인프라 시설에 초점을 맞췄다. 시간이 더 소요될지언정 지뢰나 위장 폭탄 분포 위험이 있다면 놀이터 한 곳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귀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위험 대비 교육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

- **사람들은 안전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들은 뒤, 자발적 의지에 따라 데이르에조르 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데이르에조르 귀환을 부추기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당국은 피난민들이 무력 충돌이 멈춘 지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곳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도주의 단체들도 이러한 귀환 강요의 사례가 없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 한편, 위험 대비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난민 캠프뿐만 아니라 도시 · 시골 내에서도 이 같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폭발 희생자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보내 줄 것을 촉구한다:

- **구호 단체들은 의료 비상사태 대비 활동을 확대 및 증진해야 한다.** 구호 단체들은 데이르에조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폭발 희생자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중대한 치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상 환자에게는 1 분 1 초가 중요하다. 살아남은 환자들의 경우, 언제 치료를 받느냐가 부상 정도와 회복 여부를 결정한다. 캠프 피난민들과 이들을 수용하는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로써 사람들이 도움이 부족해 지뢰가 깔려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접근성 제한을 전면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 **인도적 공간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이를 막는다면 지역민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당국은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촉진해야 한다. 관료적 장애를 비롯한 갖가지 문제들은 구호 활동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이로써 사람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해 위험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최소한 고향에는 내 집이 있고 든든한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면 지뢰와 위장 폭탄에 노출된다. 장애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금,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다.

(본 문서에 언급된 환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